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3

아나키스트연대

2020년 11월 23일

# 차례

1. [실패한정부와실패한시장]	3
2. [이시국이니까파업이다]	3
3. [그들만을위한공항]	4
4. [더다양한자기결정권을상상하자]	4

## 1. [실패한정부와실패한시장]

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에도불구하고부동산시장이안정될기미는보이지않는다. 정부는답을찾지못한채방황하고있고우파들은이를시장에억지로간섭하려한결과임을강조하며그들이주장하는자유시장원칙에따라개입을그만두라고주장하고있다.

물론언제나그렇듯둘다틀렸다. 먼저, 문재인정부가과연대중을위한부동산정책을펴왔던가? 그들은입으로만투기억제를외쳤을뿐다주택, 건물불로소득등의규제에있어항상소극적이었으며반대로다주택자들을막는답시고임대사업자지위를부여해가며반대로투기를조장하기까지하였다. 공공주택의공급은충분치않았고토지, 건물자본가들은결국건들지도못한채그린벨트를해제하려고까지시도했다. 정부의실패는시장자본을침범해서가아닌그들에게굴복했기때문이고과도한개입을해서가아니라최소한의대책조차못세웠을뿐이다.

과연부동산정부에있어정부에게걸수있는기대가있을까? 엠겔스가'주택문제에관하여‘에서지적한바와같이주택의소유문제는기본적으로자본주의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노동자계급이생존을위해직장과의접근성이좋은주택으로의이주를항상강요받는반면자본가계급에있어토지와주택은그저또다른투기적수단의하나일뿐이다. 국가마저노동계급에자비롭지는않다. 주거권을보장하기위한답시고국가의임대주택사업을수행하는공기업들조차도주택장사를하려는것은마찬가지다. 주택이건설이후로가치가늘어나는바가없음에도공공임대사업주들은세입자들에게매년인상된보증금으로재계약을시키고물가인상을핑계로월납임대료를늘린다. 이는과세나정부의공공주택사업증대따위로는근절할수없는체제근본적문제의사이클이고, 소유위에기반한부르주아의회체계내에서활동하는그들로서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

결국노동자계급의주거권문제는의회주의적방식이아니라오직노동자계급의투쟁을통해서만해결될수있다. 주택의소유는그것에투기를한자본가계급이아닌그것을건설한노동계급에있어야만하며더나아가산업사회에서서로가서로에얽매인전노동자들에있어야만한다. 부동산대책은개입주의나자유시장따위가아닌노동자계급에의한즉각적인주거의사회화, 공공화, 공유화에달려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8/104030924/1>

## 2. [이시국이니까파업이다]

지난한주는말그대로파업의한주였다. 공공-민간영역, 정규직-비정규직, 업종등을가리지않고하루가멀다하고새로운파업투쟁이열렸다. 임금인상을요구하는파업도있었고, 제대로된정규직전환을요구하는파업도있었고, 노동조합의교섭권을박탈하는기재부의지침을개선하라는파업도있었고, 임금인상안 0.1%(월급2,000 원인상) 을받아들고존중을요구하는파업도있었다.

그리고이파업을다루는기사들은대부분“이시국에파업을해야하냐”는논조를보였다. 심지어 <한겨레> 마저말이다. 코로나-19 3 차재확산이다. 모두가힘든상황이다. 완성차공장에서파업을하면부품하청업체가힘들고, 학교비정규직이파업을하면아이들이볼모로잡히고, 공공부문노동자들이파업을하면너희는해고는안당하지않냐고한다.

하지만, 이모든“이시국”들에정말로묻고싶은것이있다. 대체노동자가투쟁을할수있는“시국”은언제인가? 노동조합은언제나“이시국에”파업하지말라는말을듣는다. 경기가나쁘면 <고통분담> 해야하니“이시국에”파업하지말라고한다. 경기가좋으면국가의성장을위해 <대승적으로> 파업하지말라고한다.

11월 3 주차다. 이시기는보통노동조합이 1 년의임단협을끝내고, 올라간임금을받으며즐거워하고, 내년을준비해야하는시기다. 하지만 2020 년, 코로나때문에회의가어려워서교섭하지못한다는말을듣고, 코로나때문에경기가어려워서임금을올리지않겠다는말을듣고, 코로나때문에집회도못할텐데파업하려면해보라는말을들어왔기에, 지금“이시국에”투쟁이터져나오는것이다.

“이시국”이고“저시국”이고, 파업을하고싶어서하는노동자는단한명도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은코로나로인한휴업/무급휴직등으로소득이급감한와중에, 수십차례의교섭에도사측은턱도없는임금안을들고나오고, 해고를협박하고, 지침을핑계대며이전합의사항불이행을선언하고, 월급 2,000 원인상안을받아야했다. 이런“시국”이다. “이시국”에, 노동자들이파업투쟁말고또무엇을할수있다는말인가?

우리 < 아나키스트연대 > 는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직접 투쟁/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동지들의 힘찬 파업 투쟁으로, 벌써 수십 년째 변함 없이 “이 시국” 평계를 대는 사용자들에게 지금 이어느 시국인지 보여달라.

“노동계급은 단순히 지시 받은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모두가 하기로 결정한 일을 하기만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계급은 그 적대자들을 모든 권력으로부터 몰아내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월 빅유니온 >,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

G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521171>

기아자동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

한국 수력원자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2&>

학교비정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3&>

철도비정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4&>

국립 중앙 박물관: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079>

### 3. [그들만을 위한 공항]

요근래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의 설전이 대단한데,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원들과 그 이외의 지역의 원들 간 알력 다툼이 있다고까지 한다. 이걸 두고 민주당은 ‘학교 학생회 정치력’보다도 못하다면서 비웃음을 내보였고 말이다. 공항, 분명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반시설이, 토목자본과 자본, 정치권에 의해 휘둘려지는 꼴을 우리는 보고 있다.

국민의 힘의 쳐세가 부정의 하다 거니, 가덕도 신공항의 신자유주의자였던 ‘노’씨 성을 가진 대통령의 유산이라느니, 이걸 육으로 사용하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데에 ‘인민의 의사’는 반영되었느냐가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말고에 대해서 여론 조사도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이는 신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세력과 정치 세력, 이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세력과 정치 세력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오직 의회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부르주아 독재 체제 아래에서의 이윤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인민들은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들을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인민을 대변하기 위해, 대변한답시고 기만적인 투표를 통해서 나마 국회로, 그리고 정치권으로 움직인 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인민을 위한 답시고 경쟁을 해대는, 인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기반시설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굴리는 것을 보라. 입으로는 ‘국민’의 이익, 지역 주민의 이익을 외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의 정당 권력, 자본 권력에 복무하고 충성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그 공항, 당신들을 위한 것 아닌가? 그 공항을 만드는데에 있어 얼마나 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노동을 착취할 것인가? 그 공항을 건설하는데에 있어 얼마나 많은 프로파간다를 통해 인민 대중을 속일 것인가? 그 공항을 건설한 뒤에는 또 어떤 협잡질을 통해 공항으로 이윤을 뽑아 먹으면서 인민 대중을 기만할 것인가?

우리는 정부, 정치권, 자본이 공항 건설에 있어 일절 개입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공항 건설 부지와 지역 등을 인민이 그 스스로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당신들은 좀 ‘짜여’ 있어라. 당신들이 그 누구보다 도주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2500022&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2500022&wlog_tag3=naver)

### 4. [더 다양화된 자기 결정권을 상상하자]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는 비혼 모의 삶을 결심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일본에서는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법률이라는 테두리로 인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비판역 시제기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데 대해 사유리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 가임신 중절을 가능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여성의 아이를 낳아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여성의 자신의 이후 삶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출산에 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더 넓은 주제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 낙태는 돼, 낙태는 안 돼, 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그리고 수세적인 자기 결정권 담론에서 벗어나서 자기 결정권의 다양한 면을 보다 폭넓게, 공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진정 나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다양한 자기 결정권, 더 다양한 행복의 모습, 더 다양한 삶의 모양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25548>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3  
2020 년 11 월 23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51885492>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